

“전통 ‘판소리’ 형식 빌려 삶과 공간 성찰”

니콜라 부리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주제 발표

인류세·기후위기 등 미래지향적 공간 재조명, 담론 확장
음악적 서사 담긴 3개 섹션...광주 곳곳 예술 프로젝트도

기후위기와 생태계 변화로 초래된 인류세 시대,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소리와 음악을 바탕으로 지구상의 공간을 재해석한다.

내년 창설 30주년을 맞이해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주제가 ‘판소리 - 21세기 사운드스케이프’로 정해졌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9월 예정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주제와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니콜라 부리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은 “한국 전통 음악 형식인 ‘판소리’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과제인 ‘공간’을 탐구하고자 한다”며 “각 지역 땅과 공간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음악 장르라는 점에서 큰 흥미를 끌었다”고 설명했다.

일상 공간 속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부르는 소리인 ‘판소리’는 지역성과 세계성을 아우르는 실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리오 감독은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판소리’는 다가올 제15회 광주비엔날레의 연대적인 특성에도 관련이 있다”며 “동시대 가장 주목받는 작가들부터 일반 시민까지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새로운 공간적 조건과 인류세 현상을 반영하는 작품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음악적인 요소로 표현되며, 한국의 특정한 지역색을 반영한 다양한 리듬도 함께 등장한다.

또 이러한 일상적인 공간 개념은 페미니즘과

탈식민 등 사회적 이슈로도 뻗어나간다. ‘안전한 공간’의 필요성이나 원주민에게 할당된 보호구역 등 사회정치학적 담론에서 공간 배분 문제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다.

부리오 감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홍수, 사막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인류와 공간의 관계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변화시켰다”며 “공간에 대해 달라진 우리의 감각과 지각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전시는 크게 3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라르센 효과(Larsen effect)’다. 두 개의 마이크가 서로 가까운 곳에 있을 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난잡한 소음을 의미하는 섹션이다. 인간 활동으로 포화상태가 된 지구, 인간과 생물종들 간의 관계에 대해 다룬다.

다음은 서로 다른 존재의 집합을 의미하는 ‘폴리포니(Polyphony)’ 섹션이다. 다양한 소리가 모이는 다성음악과 같이 인류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 존재를 모두 포함하는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무한 공간에 대한 탐구가 이뤄지는 ‘태초의 소리(Primordial sound)’다. 불교의 ‘옴’이나 중국의 ‘치’, 박병의 첫번째 소음 등이 그 예시인데, 이번 섹션에서 예술가들은 분자부터 우주까지 광범위한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그들만의 ‘거리’를 발견한다.

전시 주제가 ‘음악’에서 출발하는 만큼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소리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5일 광주 동구 라마다 플라자 총정호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니콜라 부리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 전시 주제와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 전시장을 잇는 복도나 공간에 맞는 음악이 작품과 함께 어우러지며 관객들에게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비엔날레 본관 전시와 함께 광주 곳곳에서도 소리와 시각 요소를 혼합한 다채로운 전시가 펼쳐진다. 카페, 공공장소, 공원, 대안 예술 공간, 상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울림’을 주제로 한 음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부리오 감독은 “공간이라는 개념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이면서도 상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대미술 전시에서 이러한 공간 문제가 다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며 “결국 이는 집단과 개인 모두와도 연관돼 있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서는 사회적 삶과 시공간을 재창조할 수 있는 예술 공간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기억을 노래하다’

피아니스트 송영민, 광주 첫 독주회...오는 29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송영민(사진)이 광주에 첫 독주회를 갖는다.

오는 29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기억을 노래하다’ 피아노 연주회다.

피아니스트 송영민은 러시아에서 수학한 피아니즘을 기반으로 이탈리아 Pedara 국제콩쿠르, 러시아 펠리츠키 피아노 콩쿠르 등 수차례 국제콩쿠르에 입상하며 다양한 음악적 색채와 견고한 테크닉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전통클래식 음악에서부터 현대 음악, 대중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행보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예술의전당 공연에 이어 칸타빌레 시리즈 두 번째인 이번



광주 독주회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전주곡 Op. 23-5번, Op. 32-11번과 피아노 협주곡 2번을 피아노 독주 편곡으로 들려주며 모차르트 소나타 K.333, 브람스의 6개의 피아노 소품 Op.118을 연주한다.

티켓은 전석 3만원이며,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 선현문집 국역 총서’ 발간

정의림 ‘일신재집’, 김택술 ‘후창집’, 정문부 ‘농포집’ 완역

한국학호남진흥원이 ‘호남 선현문집 국역 총서’를 출간했다.

이번 국역 총서는 일신재 정의림(1845-1910)의 ‘일신재집’, 후창 김택술(1884-1954)의 ‘후창집’, 농포 정문부(1565-1624)의 ‘농포집’을 완역한 결과물이다.

호남 출신 정의림은 노사 기정진의 3대 제자로 노사학 계승 및 위정척사사상을 실천했으며, 을미사변 때 의병에 참여한 인물이다. ‘일신재집’ 국역은 정의림의 학문과 사상을 엿볼 수 있고, 호남지역 농정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정문부는 간재 전우의 수제자로 도학과 문장이 뛰어났고, 일제강점기 항일 운동에 참여한 인물이다. ‘후창집’ 국역에서는 김택술의 학문관, 역사관, 사상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다양한 역사적 명소를 저술한 작품이 다수 수록돼 역사 디지털 복원 및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정문부는 기축옥사부터 이괄의 난 등 역사적 정점의 시기에 일평생을 할



호남 선현문집 국역 총서 (한국학호남진흥원 제공)

동했고, 역사의 변곡점인 임진왜란 때 맹활약한 인물이다. ‘농포집’ 국역에서는 임진왜란 시기 정문부의 활약상을 볼 수 있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정문부의 문학, 사상, 철학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호남문헌 완역 기념 심층연구 학술대회도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전북대 인문사회관 208호에서 ‘후창 김택술의 학문과 사상’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어 오는 29일에는 진주향교에서 ‘농포 정문부의 학문과 임진왜란 위상’ 학술대회가 열리며, 다음달 13일 오후 1시 호남문화원에서는 ‘일신재 정의림의 학문과 사상’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최명진 기자

‘넌지시 그리하다, 메타포’展

호남조각회, 오는 29일부터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지구 환경위기와 생태적 변화는 은유적으로 담아낸 조각 전시가 마련됐다.

호남조각회는 오는 29일부터 7월1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제3회 기획전 ‘넌지시 그리하다 - 메타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광주미술협회가 주최

하고,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이 후원한다.

호남조각회는 호남대 조각전공자들이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다. 이번 호남조각회 기획전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활발한 조각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들의 다양한 조형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기후위기 시대 모든 변화에 따른 행동, 개념, 물체 등이 지니는 메타포적 현상을 담아내고 있다. 주변 곳곳에서 나타나는 상징되고 단순화된 코드들의 다양한 조형들을 은유적 시점으로 표현하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전시 참여작가는 김광래·김대승·김상욱·김숙빈·김지은·김혜철·박성문·선명희·우정호·류윤숙·이병선·정숙경·조성태·천기정·최용석·허서형 작가다. 한편, 전시 오픈식은 오는 29일 오후 5시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열린다.

/최명진 기자



김광래작 '즐거움상상'

상무지구 2,000평 실내스포츠공원

파라드시티

14일동안 CALORIE BAR Lounge for Diet & Detox care DANIEDEL Skin & Body Aesthetic THE 140RYS FITNESS SOLUTIONS

테니스 골프

062 374 0088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다움 상가 2층

광주 애견카페 & 애견운동장

SKY GARDEN

사랑하는 반려 동물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하늘정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동 684-4 Tel. 062) 714-2898